

제 목	국 문	공공보건조직을 통한 농촌지역 초등학교 불소양치사업 개발에 관한 연구 (1)		
	영 문	A study on the development for the primary school fluoride mouth rinsing project through the public health system in a rural area (1)		
저 자 및 소 속	국 문	최진수, 홍석진*, 황민홍**, 이상대*, 정성숙*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,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*, 곡성보건의료원**		
	영 문	Jin-Su Choi, SukJin Hong*, MinHong Hwang**, SangDae Lee*, SeongSoog Jeong** Dept. of Preventive Medicine, Medical school, Chonnam Univ. Dept. of Preventive Dentistry, Dental School, Chonnam Univ*. Goksung Health Center**		
분 야	보건관리(보건소)	발 표 자	이 상 대	
발표 형식	구 연	발표 시간	15분	
진행 상황	연구완료 (), 연구중 (0) → 완료 예정 시기 : 98 년 12월			
<p>1. 연구 목적 : 초등학교 학동기는 유치의 교환기로서 치아가 맹출후 2 - 4년에 치아우식증의 발생이 높으므로 이 시기에 치아를 불소에 노출시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. 이에 따라 전남곡성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구강보건담당자의 협조아래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치아우식예방 및 구강건강관리상태의 개선을 기대하고, 불소용액양치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.</p> <p>2. 연구 대상 및 방법</p> <p>1) 연구대상 : 전라남도 곡성군에 위치한 9개 초등학교 3, 4학년 학생 총 526명을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사업을 1995년 5월부터 1996년 5월까지 1년동안 시행하였다. 이중 4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불소용액양치군으로 하였으며, 불소용액양치를 하지 않은 1개교는 비교군으로 하였다. 본 연구는 비교군 58명, 불소용액양치군 64명 총122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, 사업시행기간내에 전출입한 학생을 제외한 비교군 54명, 불소용액양치군 44명 총 9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.</p> <p>2) 연구방법 : 곡성군내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주관아래 담당지역의 학동에 대해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. 공중보건치과의사와 치위생사에 대한 불소용액양치사업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은 매월 정기 월례회의에서 시행하는 데 국한하였으며, 보건의료원 단위에서의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나 평가는 하도록 하지 않았다.</p> <p>연구 대상자에 대하여 구강검사를 실시하여 우식경험연구치수 및 간이구강 위생지수를 조사하였고, 학동의 잇솔질 시기 및 횟수등도 조사하였다. 또한 불소용액양치군의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에 대한 반응을 설문조사하였다. 불소용액양치는 주 1회 점심식사후 잇솔질을 하게 한 다음 0.2%불화소다용액으로 1분간 양치하도록 하였다.</p>				

3. 연구결과

- 1) 사업의 충실도를 평가하기 위해 9개 초등학교의 불소용액양치 횟수를 조사한 결과, 1년간 주1회 시행하도록 하였으나, 각 학교마다 약 10회 내외의 매우 낮은 시행횟수를 보였다.
- 2) 비교군의 우식경험연구치지수는 1.56개에서 1.83개로 0.27개 증가하였고, 불소용액양치군은 2.34개에서 2.84개로서 0.50개 증가하여 불소용액양치에 의한 치아우식예방효과는 인정할 수 없었다. 이러한 사실은 1년간의 단면연구적 관찰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.
- 3) 간이구강위생지수는 비교군이 0.41에서 1.03로 0.62증가하였고, 불소용액양치군은 0.74에서 0.85로 0.11증가하여 두군 모두 구강위생상태가 나빠졌다.
- 4) 잇솔질 횟수는 비교군이 0.20회, 불소용액양치군이 0.19회 증가하였다.
- 5) 불소용액양치에 대해 80.4%의 학동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중 78.2%가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용액양치를 한다고 응답하였다.
- 6) 불소용액의 맛에 대해 물과 같다고 응답한 학동이 39.2%로 나타난 반면, 이상한 맛이 난다고 응답한 비율도 34.0%로 나타나, 용액의 맛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다.

이상의 결과로 보아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담당아래 시행한 불소용액양치 사업은 구강보건학적인 의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.

4. 고찰

불화물의 자가도포에 의해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불소용액양치법은 우식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잇솔질의 습관화와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.

그러나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불소용액양치에 의해 치아우식예방효과, 구강위생상태의 개선, 잇솔사용빈도의 증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이들 지역을 담당한 공중보건치과의사가 예방사업에 대한 참여의식의 부족으로 불소용액양치사업에 대해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.

따라서 이사업의 주관자를 치위생사로 전환하는 방안과 정식보건행정사업으로 전환, 추진하는 방안등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.